

# 주택대출금리 잇단 인상...1년새 0.8%p 올라 1억 대출 年 80만원 추가 부담

## ‘금리 상한제’ 제외 기존대출자 한숨만

지난해 8월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최모(여·38·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요즘 대출이 자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 대출 당시 연 6.5%였던 금리가 지금은 7.3%로 오르면서 연 80만원 이란 이자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한달이면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값이 60만원이 든다”며 “정부의 금리 인상과 금리조정 상한제 도입 등이 기존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숨을 지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빚을 내 집을 산 대출자들

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번주 주택대출 금리를 연 5.98~7.38%로 1주일전에 비해 0.04%포인트 인상했다. 하나는 행도 주택대출 금리를 연 6.20~6.90%로 같은 기간 0.02%포인트 올렸으며 우리은행(5.99~7.69%), 신한은행(6.09~7.49%), 외환은행(6.15~7.30%)도 각각 0.01%포인트씩 인상했다. 정부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의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금리조정 상한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신규 대출자나 만기 연장자에 한해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의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상한제에 대해 문의했다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기존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에 금저서(CD)가 오를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9조5천298억원)에서 주택대출(7조9천764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한 데다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비중이 95%에 육박해 주택대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심한 편이다. 광주은행의 주택대출 잔고를 보더라도 올 6월 말 현재 8천55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28.9%인 1천920억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금리도 평균 0.59%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 도입을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들 만기를 연장할 때로 한정해 기존 대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필수기자 bungy@



농경지 침수 4.5일 이동동안 내린 비로 영암군 미암면 일대가 5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고 강수량 155.9mm를 기록했다. 영암군 서호면 율령리의 침수된 논에서 한 농부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했던 비닐관을 치우고 있다. /위키라기자 jrwi@kwangju.co.kr

## “탈레반 요구 응할 수 없다”

### 韓, 전화 통보... 오늘 美-아프간 정상회담이 고비

아마도 “인질 살해 재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19일째를 맞은 6일 한국 정부와 탈레반 간 직접접촉을 위한 사전 교섭이 본격화되면서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 정부는 한 목소리로 ‘창의적’ 해법을 거론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간 5~6일 정상회담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5일 한국 정부가 탈레반측과의 탈레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가즈니주 탈레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측이 지난 3일 전화 협상에서 ‘우리는 역부족이다. 당신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탈레반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직접 접촉과 관련 “접촉 장소 선정 등 기본적인 것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접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촉 장소나 시기 등은 곧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이날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불만족스럽다. 만약 오늘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불만족스러우면 인질들을 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인질 살해 위협을 재개했다고 아프간 전화 협상에서 동료 죄수 석방이라는 탈레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가즈니주 탈레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측이 지난 3일 전화 협상에서 ‘우리는 역부족이다. 당신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탈레반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직접 접촉과 관련 “접촉 장소 선정 등 기본적인 것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접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촉 장소나 시기 등은 곧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이날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불만족스럽다. 만약 오늘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불만족스러우면 인질들을 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인질 살해 위협을 재개했다고 아프간 전화 협상에서 동료 죄수 석방이라는 탈레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가즈니주 탈레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측이 지난 3일 전화 협상에서 ‘우리는 역부족이다. 당신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탈레반

## ‘켓츠’ 10만 관객 돌파

국내 공연 두달만에...대구 이어 서울도 연일 매진

광주공연 내일 2차 예매는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관객들로 북적거렸다. 관객들은 로비에 세워진 고양이모형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의 반응도 열광적이었다. 각각 색깔의 고양이가 보여주는 역동적인 춤과 ‘메모리’ 등 노래들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공연 후에는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졌다. ‘켓츠’ 오리지널립은 9월 7~16일까지 광주문화회관 무대에 선다. 현재 1차 티켓(9월7~12일 공연분)을 판매중인 광주공연은 7월 11~12일 남로동당 공연을 제외하고 2차 티켓(9월13~16일 공연분) 판매를 시작한다. 문의 062-220-0541. /서울=김미기기자 mekim@

## 李 “東西 모두 지지” 朴 “국민 화합 책임”

한나라, 광주 합동연설회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홍준표 의원은 5일 광주 구동실내 체육관에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전 시장은 “이제까지의 대통령 은 늘 동쪽에서, 서쪽에서 어느 한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반쪽 대통령이었다”면서 “저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안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에게 ‘국민화합의 최고 책임자’라고 했다”면서 “제가 꿈꾸는 선진국은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그릇도 깨고 손도 베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열심히 산 사람들은 모두가 범법자란 말이냐”고 이 전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 의원은 “제가 광주 정신을 한나라당에 접목시켜 광주 정신을 한나라당에서 꽃피우겠다”고 강조했으며 홍 의원은 “경선 후 단합을 위해 저에게 힘을 불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본즈 75호...최다홈런 타이 ▶18면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인터뷰 ▶19면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전국대표번호 1588-1134

**1등 여행사** '고객님'은 '주인님'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코스삭살장 30대 무량기업! 9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

광주에서 바로가는 여름휴가!

★광주에서 출발하는 전세계 직항 상품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항공/에어서울/에어아시아/에어부산/티웨이항공/대한항공/에어서울/에어아시아/에어부산/티웨이항공

유리프/에어서울/에어아시아/에어부산/티웨이항공

동남아/일본/북해도/남태평양/미주

이제 여행준비하시고 빨리 떠나세요!!

이재수 011-649-8362  
서원주 011-602-9128  
민경재 011-608-3456  
김진일 011-608-0899

당사는 관광진흥회 및 공정거래위의 중요안 표시·광고사항 고사를 철저히 준수합니다!